

세상을 이해하는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실주, 어리석음에 대한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

실수, 어리석음에 대한 명언

- 사나운 불들은 서로 집어삼킨다.

<셰익스피어, 「리처드 2세」, 1564~1616>

- 사람들은 허영심이 매우 좋다. 그리고 그렇다고 인정받는 한, 아무거나 다 좋아한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어리석음과 허영심은 늘 붙어 다니는 친구이다.

<보마르세, 「죄지은 어머니」, 1732~1799>

- 늑대는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양을 잡아먹는다.

<이솝, 「우화」, 미상~미상>

- 관 구멍으로 하늘을 내다본다.

<장자, BC 369~ BC 289>

- 잘났다고 서로치켜세워주는 자들을 사람들은 깎아내린다.

<덕청, 「도덕경해」, 1546~1623>

- 허풍쟁이와 북은 둘 다 시끄러운 소리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듯하다.

<옥센세르나, 「금언과 성찰」, 1583~1654>

- 호의는 높을수록 빨리 추락한다.

<데스투슈,「야심가」,1656~1746>

- 황달에 걸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인다.

<루크레티우스,「만물의 본성에 관하여」,BC 96~BC 55>

- 납은 칼이 되지 못한다.

<유안,「회남자」,BC 179~BC 122>

- 남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면 실수를 자주 하지만,
남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.

<스타니스와프1세,「친절한 철학자의 작품들」,1677~1766>

- 편견은 어리석은 자들의 논거이다.

<볼테르,「자연법에 관한 시」,1694~1778>

-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았다면 죄를 지은 것이다.

<앙투안루아젤,「관례집」,미상~1607>

- 물에 빠진 뒤에 배 부른다.

<진수,「삼국지」,233~297>

- 발끝으로 서 있는 자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.

<노자,「도덕경」,BC 601~미상>

- 가장 크게 우는 닭이 알을 가장 잘 낳는 닭은 아니다.

<Th.풀러,「금언집」,1654~1734>

- 가장 아름다운 화음은 불협화음에서 생겨난다.

<헤라클레이토스, BC 540~ BC 480>

- 정신 나간 판사는 짧게 판결을 낸다.

<피에르그랭고르, 「주목할 만한 교훈, 속담과 격언」, 1475~1583>

-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,
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다.

<J.릴리, 「유폴즈: 지혜의 해부」, 1553~1606>

- 지혜로운 자는 남의 집에서 배우지만, 바보는 자기 집에서 더 많이 배운다.

<세르반테스, 「돈키호테」, 1547~1616>

- 시기하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.

<소플리니우스, 「서한집」, 61~112>

- 칭찬하면 잘못이고 비난하면 더욱 나쁘다.
그대가 그 일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.

<레오나르도 다빈치, 「수기」, 1452~1519>

- 천사 같은 젊음이 악마 같은 노년을 만든다.

<에라스무스, 「격언집」, 1466~1536>

- 새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도 헛수고다.

<「구약」>

-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종종 어리석을 때가 있으나 판단으로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부를 허비하여 나머지 절반을 비참하게 보낸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어리석은 자는 그 노여움을 날낱이 드러낸다.

<「구약」>

-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그 길을 옳다고 한다.

<「구약」>

-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기를 장난삼아 한다.

<「구약」>

-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.

<「구약」>

-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으로 향한다.

<「구약」>

-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짓에 부딪치느니 새끼를 빼앗긴 어미 곰에 부딪치는 게 낫다.

<「구약」>

- 거만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기분이 좋다.
자신이 쓰러졌다고 자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.

<플로리앙, 「우화」, 1755~1794>

- 허풍선이가 용감하기는 드물고, 용감한 자가 허풍을 떠는 일도 드물다.

<스웨덴의 크리스틴여왕, 「회고록」, 1626~1689>

- 우리의 판단은 손목시계와 같다. 저마다 시간이 다 달라도 자기 것이 맞다고 믿는다.

<A.포프,「비평론」,1688~1744>

- 요동의 흰 돼지

<범엽,「후한서」,398~445>

- 원송이가 관을 쓰다.

<사마천,「사기」,BC 145~BC 86>

- 사람들은 자신의 일보다는 남의 일을 더 잘 판단한다.

<테렌티우스아페르,「자학자」,BC 195~ BC 159>

- 잘못된 판결은 수많은 나쁜 선례보다 더 많은 고통을 준다.
나쁜 선례는 시냇물만 썩게 하지만 잘못된 판결은 원천을 썩게 만들기 때문이다.

<프랜시스베이컨,「수상록」,1561~1626>

- 장작을 안고 불 끄러 간다.

<유향,「전국책」,BC 79~ BC 8>

- 적이 간 뒤 활을 쏜다.

<「벽암록」>

- 어리석은 자들 사이에서 지혜로워 보이는 자가 현자들 사이에서는 어리석어 보인다.

<퀸틸리아누스,「웅변교수론」,35~100>

- 무지가 아는 체하는 것보다 낫다.

<부알로,「서한집」,1636~1711>

- 지나치게 증명하려고 하는 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.

<Th.풀러,「금언집」,1654~1734>

- 자기 종을 의심하는 주인은 그 종의 노예가 된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「격언집」,BC 85~BC 43>

- 죄가 습관이 되면 멋진 색깔을 입는다.

<Th.데커,「정직한 창녀」,1572~1632>

- 정숙함이 어떤 이들에게는 미덕이나 다른 이들에게는 악덕이다.

<C.C.콜튼,「라콘 혹은 간단하게 많은 것을 말하기」,1780~1832>

- 전제 군주는 과일을 얻으려고 나무를 자르는 자이다.

<몽테스키외,「법의 정신」,1689~1755>

- 다른 사람이 아무도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른다면, 안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.

<가이우스루킬리우스,「풍자시」,BC 180~ BC 103>

- 두 눈만 지닌 자는 어둠 속에서는 장님이다.

<안토니오페레즈,「작품과의 관계」,1540~1611>

- 사람들은 당나귀를 때리지 못할 때 길마를 대신 때린다.

<페트로니우스,「사티리콘」,20~66>

- 자신있는 행동은 어느 정도의 자력을 가진다.

<에머슨,1803~1882>

- 벌받은 죄인은 불량배들에게는 본보기이고,
무고하게 단죄받은 이는 모든 신사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무고한 이를 단죄하는 것보다 죄인을 구하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편이 낫다.

<볼테르, 「자디그 또는 운명」, 1694~1778>

- 죄인은 범죄로 이익을 얻는 자이다.

<세네카, 「메데이아」, BC 4~65>

- 대결하면 흑백을 알게 된다.

<에드워드 피츠제럴드, 「플로네즈」, 1809~1883>

- 누구나 죄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

<윌리엄블랙스톤, 「영국법 주해」, 1723~1780>

- 큰 죄인일수록 받는 형벌도 크다.

<볼테르, 「세미라미스」, 1694~1778>

- 중상모략만큼 빠른 것은 없다.

<키케로, 「플랑키오를 위하여」, BC 106~BC 43>

-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화를 내면 그의 말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.

<벤존슨, 「카틸리나의 음모」, 1572~1637>

- 계획된 죽음은 가장 추악한 죽음이다.

<바킬리데스, 「시라쿠스의 히에론을 위하여」, BC 516~BC 451>

-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맞는 죽음이다.

<에픽테토스, 「대담집」, 50~135>

- 파렴치한 면상에도 증거 하나면 충분하다.

<앙투안루아젤, 「관례집」, 미상~1607>

- 지혜가 지나치면 타인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.

<몰리에르, 「인간 혐오자」, 1622~1673>

- 자기 혼자서 지혜롭기를 바라는 것보다 정신 나간 생각은 없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은,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.

<키노, 「아르미드」, 1645~1711>

- 자기 자신보다 남들에게 현명하기가 훨씬 쉽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모든 열정은 나이가 들면 다 사그라지지만 자존심은 결코 죽지 않는다.

<볼테르, 「스탕스」, 1694~1778>

- 모욕 받은 자존심은 용서를 모른다.

<루이비제, 「고백」, 1755~1842>

- 자존심의 나라에서 발견한 몇 가지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미지의 땅이 많다는 것이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자연이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.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.

<J.J.루소,「에밀 또는 교육론」,1712~1778>

- 장점이 클수록, 잘 나누려 하지 않는다.

<발타자르그라시안,「지혜의 기술」,1601~1658>

- 세상은 종종 재능 자체보다는 재능의 걸모습에 보상을 준다.

<라로슈푸코,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1613~1680>

- 질투는 모든 악 가운데 가장 크고, 이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가장 가차 없는 악이다.

<라로슈푸코,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1613~1680>

- 질투는 창백한 낫빛과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다.

<헤시오도스,「노동과 나날」,미상~미상>

- 어리석음은 지체하는 법이 없다.

<발타자르그라시안,1601~1658>

- 급한 자는 문을 찾다가도 문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.

<괴테,1749~1832>

- 이성이 결여된 난폭한 힘은 자신의 무게를 못 견디고 쓰러진다.

<호라티우스,「송시」, BC 65~BC 8>

- 무딘 칼은 나무가 아닌 손가락을 자른다.

<가브리엘뢰리에,「주옥같은 격언집」,미상~1568>

- 답 너머에 있는 사과가 가장 달콤하다.

<허버트, 「명궁」, 1593~1633>

- 불충분한 자료로 성급한 가설을 세우지 말라.

<코난 도일, 「공포의 계곡」, 1859~1930>

-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낮추어 본다.

<괴테, 1749~1832>

- 밀보다 더 나은 빵을 찾는 바보

<장르봉, 「프랑스 격언집」, 1319~1364>

- 추한 자들은 대개 남들에게 자신들이 못난 탓을 한다.

<프랜시스 베이컨, 「학문의 권위와 진보」, 1561~1626>

- 거짓말은 노예의 수법이다.

<플루타르코스, 「모랄리아」, 46~120>

- 자기 대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좋아한다.

<「구약」>

-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지 말라.

<피타고라스, BC 580~BC 500>

-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을 그만큼 굳게 믿는다.

<몽테뉴, 1533~1592>

- 사람들은 자신이 못하는 일을 남이 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.

<레츠추기경, 「잠언과 성찰」, 1613~1679>

-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억력을 한탄하지만,
자신의 판단력을 한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자만하는 인간은 현명한 인간의 비웃음의 표적이다.

<프랜시스 베이컨, 1561~1626>

- 정보가 많다고 해서 판단이 쉽다고는 할 수 없다.

<칼 폰 그라우제비츠, 1780~1831>

- 네 힘에 부치는 짐을 짊어지지 말라.

<호라티우스, BC 65~BC 8>

- 변명하는 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.

<성에로니모, 347~419>

- 수치심이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.

<성아우구스티노, 1746~1815>

- 악이 사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이다.

<베이컨, 1561~1626>

-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의심은 말 없는 모욕이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충실함을 의심한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의심은 지혜가 가르치는 치료제이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머릿속의 의심은 새들 가운데 있는 박쥐와 같다.

<프랜시스베이컨, 「수상록」, 1561~1626>

- 의심 많은 자는 자신을 배반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.

<볼테르, 「자이르」, 1694~1778>

- 위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더 빨리 온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훌륭한 수영 선수도 결국엔 물에 빠진다.

<가브리엘뢰리에, 「주옥같은 격언집」, 미상~1568>

- 위험을 지나치게 조심하면 대개 위험에 빠진다.

<라퐁텐, 「우화」, 1621~1695>